



### 농림수산식품부

#### AI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조치 ·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산지역내 발생한 AI가 더 이상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간 추진해 온 방역조치를 보완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AI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시가 최초 발생했던 전북 · 전남 지역은 추가 발생이 없지만 그동안 서울 ·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비전문 사육시설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던 시의 유행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래시장에서의 닭 · 오리 출하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다음과 같이 보다 강한 방역조치를 추가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방역조치 보완 · 강화 요지〉

- 1) 전국 가금류 도축장(61개소) 출하 닭 · 오리에 대해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증명서 미첨부 닭 · 오리 도축금지 조치
  - 닭 · 오리 사육농가는 출하 전 관할 시 · 군 · 구에 검사신청
    - 시 · 군 소속 가축방역관, 공익수의사 또는 지방 공수의가 임상검사
    - 도축장 소속 검사원이 “임상검사증명서” 확인 후 도축
- 2) 전국 상설 닭 · 오리 판매 재래시장(83개소) 자진 폐쇄 유도
  - 현행 : 일일 소독 · 점검 및 시료채취 정밀검사
  - 강화 :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AI 진정시 까지 자진 폐쇄 유도
    - 자진 폐쇄 당시 보유중인 닭 · 오리 살처분

시가 보상(농식품부)

- 상설시장내 닭 · 오리 판매 상인에 대한 영업 피해는 지자체 부담

- 3) 재래시장 · 가든 식당 등에 닭 · 오리를 운반해 주는 차량에 대한 세척 · 소독 확인 강화
    - 닭 · 오리 도축장 경영자가 발행한 “소독실시기록부”가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적용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경찰협조 길거리 단속)
  - 4) AI 진정시 까지 닭 · 오리 분뇨의 사육시설 밖으로의 반출제한
    - 계분 비료공장 등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비료제조업자가 해당차량에 대해 소독 후 기록해준 “소독실시기록부”를 점검
    - “소독실시기록부”가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경찰협조 길거리 단속)
  - 5) 친환경 오리농법 시행자제 및 오리농법이 시작되는 6월초부터 오리농법에 투입된 오리의 주기적 점검 및 검사 실시
    - 대상 : 4,495농가, 50여만 마리
  - 6)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 실시하는 공동방제단(3,878개반)의 소규모 농가 소독활동 강화
    - 공공시설 및 소, 돼지 사육농가 중심으로 실시하던 소독을 닭 · 오리 사육농가로 전환 실시
- 한편 농식품부는 5.1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전국 부시장 · 부지사 회의에 제2차관을 참석시켜 그동안 방역상황을 설명하고 강화대책을 시달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 가금류 도축장에 출하하는 닭·오리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 2008년 5월 16일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목적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 임상검사 명령 :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오리 소유자
  - 나.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오리 운송업자
4. 기간 : 2008.5.16~마지막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5. 기타사항
  - 가. 소유자는 도축장 출하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를 신청하고, 임상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도축장 출하시 운송업자에게 인계
  - 나. 운송업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도축의뢰시 자체검사원에게 제출
  - 다. 도축장으로 닭·오리 출하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02-500-2127~9)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학교 등 단체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특별 점검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하절기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군대 등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에 대하여 2008년 5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16개 시·도 교육청, 국방기술품질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보존의 적정성,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조 및 변조 여부, 무허가, 미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가공·유통·판매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되는 단체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단속에 앞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교육·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와 일본의 AI 바이러스 유전자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는 2008년도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AI 바이러스와 일본 아키타현의 죽은 백조에서 분리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음을 공

동으로 확인하였다.

- 우리나라 김제에서 분리한 AI 바이러스(A/chicken/Korea/Gimje/2008)와 일본 아키타현에서 분리한 AI 바이러스(A/whooper swan/Akita/1/2008)는 상호 유전적으로 매우 근접한 것으로 확인됨(모든 유전자에서 99.7% 이상의 상동성을 나타냄).
-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2003~2004, 2006~2007, 2008년)와 일본(2004, 2007, 2008년)에서 지금까지 3차례 발생한 예에서 확인된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고병원성 시가 발생된 것을 볼 때 양국의 공통유입 원인으로 철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 AI유전자 분석관련 일본정부 보도자료(2008. 5. 21) 요지
- 백조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 AI 등 야생조수대책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감염경로 등 조사작업반” 설치·운영
-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던 동물위생연구소로부터 일본분리주(아끼타주)는 한국분리주(김제주)와 유전자 레벨에서 매우 가깝다(99.7% 이상의 상동성)라고 보고가 있었음.
- AI 바이러스는 감염된 조류와 밀접한 접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새의 배설물에 손대는(접촉하는) 경우에는 씻어낸다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냉정한 행동을 바람.
- 다시 확인한다면, 야생조류와는 가능한 맨손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쇠약·폐사한 야생조류가 발생한 근처에 가지 않도록 당부

##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에 동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4월 22일 삼계탕 먹는 날 행사를 가진데 이어 지난 5월 23일에도 삼계탕 먹는 날 행사를 가졌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방역·역학조사 및 진단업무 등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가운데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오리 사육농가 및 관련 식품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날 전 직원이 구내식당에서 삼계탕을 점심으로 먹었다.

한편, 검역원은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을 “닭·오리고기 먹는 날”로 정하여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 “동물용의약품의 GMP 관리와 발전방향”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5월 22일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의학연구회와 서울대 BK21수 의과학연구인력양성단 공동주최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우수업체(GMP) 관리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춘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정부 및 다국적 기업 GMP 업무 담당자와 전문 컨설턴트 등이 참가하여, 각국의 GMP 제도 및 관리현황 그리고 실사대응 방법 등 6개의 연제가 심도있게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국의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및 관리 체계,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GLP 등 요구, 제조시설 및 제조·품질관리의 GMP 요건 및 관리현황, EU 및 미국의 동물용 백신 관리체계 등이 논의되어 향후 우리나라 동물약품 관리제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축산과학원

### 천안 AI발생, 국가유전자원 방역 비상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천안시 동면 직산읍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이 나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SOP'에 따라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이 나온 오리농장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와 약 4.5km의 거리.

'축산과학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SOP'에 의하면 ▲모든 차량 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 출입금지 ▲자원개발부 내 가금연구동 출입 금지 ▲외부인 차단에 따른 접견실 마련 ▲발생지역내 직원들의 출퇴근 통제 등이 포함된다.

축산과학원은 우선 사료수송차량과 집유차량, 기름수송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가금연구동 관리자 15명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금연구동에서 상주하며 숙식을 해결하도록 했다. 외부인 차단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 정문 출입구에 민원인이나 방문자 접견실을 마련하고 발생지역 3km 이내에 직원들의 출퇴근을 전면 통제키로 하였다.

축산과학원 허태영 연구관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15년간 힘들게 복원한 토종닭이 살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축산과학원 부근 AI 발생에 따른 조치 계획 보고

#### □ 발생 현황

- 발생지역 : 충남 천안시 직산읍 석곡리 21-9번지
  - 축산원과 거리 : 발생지점으로부터 약 4.5km 임
  - ※ 농장주가 경계지역내(10km)에 오리부화장도 소유하고 있음
- 사육축종 : 오리(칠면조 포함) 3,900수
- 진단결과 : 충남도 간이검사결과 AI 양성 반응 보임
  -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조사 중
  - 고병원성 판정될 경우 반경 10km 이내 이동제한 조치

□ 축산과학원 조치 현황

- AI 방역 SOP에 따라 이동 제한 및 차단 방역 실시
  - 모든 차량 축산자원개발부(자개부) 출입금지, 임시 주차장 확보
  - ※ 단, 사료수송차량, 집유차량, 기름수송차량(허가를 득한 차량) 출입 허용<반드시 전면소독 실시 후 반입으로 감염원 사전 차단>
  - 가금연구동 출입 금지 : 가금 연구동 관리자 해제 시까지 상주 : 15명(출·퇴근 없이 연구동 내 연구동내 시험축 관리 및 계사·시험축 방역 실시)
  - 현장출입 금지 및 진입구와 계사올타리 차단막(방역띠) 설치
  - 외부인 차단에 따른 자개부 방문자 접견실 별도 설치 운영
- 발생지역 내(3km) 직원들의 출·퇴근 통제 : 12명

□ 종축 보존 대책

- 보존대상 : 2축종(닭, 오리) 6품종 13계통
- 보존수수 : 12,924수(닭 12,139, 오리 785)
  - 수원 : 응용생명공학과(닭 1,690수, 종란 600개)
  - 천안 : 가금과(11,234수 : 닭 10,449, 오리 785)
  - 대관령 : 순계 종란 1,080개
- 보존대책 : 중복 보존
  - 1단계 분산 조치(4, 10)
    - ※ 순계 종자를 축산생명환경부(수원)로 계통당 각 100수씩 900수 분산 보존
  - 2단계 분산 조치(4, 16)
    - ※ 청둥오리 종란 600개 선입·출 방식으로

축산생명환경부(수원) 보존

- 3단계 분산 조치(4, 23)

※ 순계 종란 1,080개 선입선출방식으로 한우시 분산 보존

- 축산원이 살처분 대상 포함 시 1년 6개월 이내 원상 회복 가능

〈AI 발생 지역 위치도〉



〈참고자료〉

- 보존대상 가금종자 현황 (2008. 5. 6일 현재)

구분	품종	계통	보유수		
			총수	성계군	후보군
닭	백색레그혼	난수형(K)	1,974	79	1,895
		난중형(F)	1,275	130	1,145
	로드아일랜드레드	난수형(C)	2,671	1,431	1,240
		산육형(D)	103	-	103
	재래닭	적갈형	1,007	1,007	
		황갈형	820	820	
		회갈형	96	96	
		흑색형	1,059	1,059	
		백색형	111	111	
	오골닭	흑색형	586	586	
코니쉬	황색형	270	270		
	흑색형	477	477		
오리	청둥오리	육색란형	785	400	385
2축종	6품종	13계통	11,234	6,466	4,768

※ 종자유지를 위한 필요수수는 계통당 1,000수임

※ 현재 필요수수 이상인 계통은 선발 기준에 따라 1,000수의 우수개체를 선발하고 있고, 부족계통은 필요수수 확보를 위해 증식 중에 있음.

## AI 살처분 ‘직접 가열식 폐사가축 처리기’ 이용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과 오리의 살처분에 기존의 매몰법이 아닌 직접 가열식 폐사가축처리기가 사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축산과학원은 “충남 연기군 오리사육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1차 양성판정이나 약 2000수의 오리를 ‘직접 가열식 폐사가축 처리기’를 이용해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직접 가열식 폐사가축처리기’는 각종 질병, 전염병 등에 감염돼 폐사한 가축을 고압스팀으로 가열하여 완전 살균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진공 상태로 폐사한 가축의 수분을 제거해 처리부산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환경오염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충남 연기군청 축산과 방역담당 심상원 지방수의주사보는 “매몰 조치할 경우 지하수 사용과 관련해 민원 발생 소지가 높고, 예방적 조치차원에서 실시하는 살처분으로 긴급성이 낮아 직접 가열식 폐사가축처리기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오리 2천수(병아리 포함)에 대해 19일과 20일 양일간 실시되었으며, 살처분 방법은 CO<sub>2</sub> 가스로 안락사 후 1회 처리용량이 500kg인 중형 직접 가열식 1대를 활용하여 4회(1회 2시간 가동) 가동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축산과학원 강석진 박사는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으로 폐사되는 가축이 소규모 발생시에는 기존의 매몰법에 국한된 방법이 아닌 발생 축산농가 자체에서 폐사가축처리기를 활용, 신속하게 처리하면 수질오염과 냄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축산물HACCP기준원

### HACCP 홍보 교육을 실시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소비자단체협의회 7개 회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HACCP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교육은 HACCP을 도입·적용하고 있는 유형별로 업체를 직접 방문해, HACCP 도입 과정 및 도입 후 효과 등을 직접 견학청취하고, 견학 일정에 들지 않은 식육판매업과 농장에 대해서는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의 세미나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견학 업체는 세양 주식회사(알가공업), (주)새이침(식육가공업),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송탄공장(사료) 등 이었으며, 서산축산업협동조합(판매업) 및 정동목장(사육업)에서는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번에 참석한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식품 먹거리 생산에 HACCP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앞으로 축산식품 구매시 HACCP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할 것이며, 이렇게 좋은 HACCP제도에 대해 많이 알려야겠다.”며 HACCP홍보에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축산물HACCP기준원은 “소비자의 식생활 안전 시스템인 축산물HACCP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 소비자들이 HACCP이 과연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고 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2회 동아시아 농업논단 심포지엄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은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5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 의실에서 일본의 농림어업금융공고, 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제2회 동아시아 농업논단」 국제심포지엄을 ‘동아시아의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이란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통해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동아시아 농업논단」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농업부문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가공·유통기업, 학계·연구기관, 행정기관의 관계자들이 경험과

지식, 정보 등을 교류하여 농산업의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구성한 산·학·관 토론의 장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올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한·중·일 공동 관심사인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개회사에서 최정섭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여 농업발전과 농촌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업의 새로운 발전체계 구축과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초발제에서는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 타카기 유키(高木勇樹) 총재가 ‘일본의 농업과 식품산업 동향 및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리청귀(李成貴) 주임은 ‘중국의 농업과 식품산업’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한국의 농업과 식품산업 동향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사)대한영양사협회

### 김경주 회장 취임식



대한영양사협회는 24일 서울롯데호텔에서 협회 임직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손숙미 회장 이임과 김경주 회장 취임에 따른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김경주 회장의 임기는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반이며, 11만 3000여 영양사와 함께 국민건강과 올바른 식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손숙미 전 회장은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됨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경상남도 도청

###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경상남도수의사회 양산 AI 발생현장 살처분 지원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소속 학생, 교수 110여 명과 경상남도수의사회 소동물 임상수의사들이 5월 20일 고병원성 AI 피해지역인 양산시 상북면에서 가금류 살처분 자원봉사에 나섰다.

김종수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의 인솔 하에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지에 도착한 학생들은 현장 가축방역관으로부터 살처분 주의사항과 작업요령을 청취하고 현장에 준비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방제복을 착용한 후 현장에 투입되었다.

이날 참여한 학생, 교수들은 오후 6시까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2만여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고 계란, 난좌 등 생산물 약2톤을 폐기하였다.

또한, 이날 경상남도수의사회(회장 정기우)에서도 소동물 임상수의사 10여명이 작업에 동참해서 지역대학, 단체가 하나 되어 AI 극복에 나서 타 시도의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날 참석한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석 교수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고통을 함께 함으로써 축산현장의 현실을 예비수의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하였다.

경상남도 축산당국은 “이번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경상남도수의사회의 AI 발생지역 자원봉사가 양산지역 조기근절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을 조기에 완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행정, 지역사회, 농가가 하나된 수범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인사소식

### ■ 트루라이프

• 2008년 4월 21일자

<인사이동>

○ 트루라이프 전략기획실장

○ 트루라이프 앵글라프로젝트팀장

부장 이권하

부장 이병진

○ 서부사료 품질보증팀장

○ 서부사료 생산팀장

○ 서부사료 연구개발팀

○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 컨설팅본부 컨설팅부문

부장 박태순

부장 김희웅

대리 성은일

대리 한정훈

사원 이해정